



심한기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소통이 가능한 세상을 꿈꾸며...

우 리 사회에서 청소년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그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또한 사회는 그들과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고민해야 할 과제가 있다. 주체적인 삶의 주인으로서의 청소년을 바라보고 있는가? 에 대한 고민과 그들은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에 대한 점검이다.

21세기의 청소년들의 요구는 단순하지 않다. 그저 많이 놀게 해주세요! 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경제적 독립과 문화적 권리를 요구한다. 물론 자신들의 요구를 자신 있게 외치는 이들은 소수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요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 되어진다. 그 다양한 요구방식에 대해 기성세대들은 단순히 일탈이나 방종으로 몰아 가기도 한다. 아이들이 표현하는 스타일에 대한 변화도 있다. 결국 기성세대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진 것이다. 그 다양함을 원칙론과 도덕론만으로 상대할 수 있을까? 이젠 그들의 권리에 대한 고민이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아직도 보호와 치료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성 세대들은 십대들의 소비

에 대해 '학생은 공부가 우선이다. 참고 견디면 나중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인식을 갖는다. 이와 달리 십대들은 '국세청이 부실기업을 감사하듯 색안경을 끼고 십대들의 소비품목을 일일이 검사하기보다 필요한 소비의 규모를 십대 스스로 책정, 다양한 방식으로 충당하고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지지해줘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 이는 서로 권리에 대한 기본적 인식 자체가 상이하고 의견대립의 구조를 갖고 있음을 증명한다. 또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 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있지만 사회적 경험과 직업과의 연계가 절실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 제정과 청소년현장의 공포가 있어도 여전히 보호적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권리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 욕구 충족의 문제와 함께 개개인의 요청(demand, want)을 담을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의 생존적 욕구만을 중심으로 한 접근은 권리의 보장이 아닌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존적 성향을 높이거나 함께 나누는 권리가 아닌 던져주는 서비스로 전

락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아이들과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권리에 대한 솔직한 의견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이제 기성세대도 그들의 요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무조건적인 수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들이 요구하는 권리는 정당한 것인가?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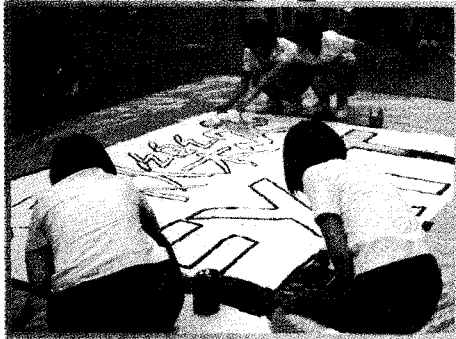
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좀 더 발전하여 청소년들의 권리를 청소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 자체가 훌륭한 의사소통이며 서로를 존중하며,

믿을 수 있는 사회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역할과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어진다.

청소년 문화는 단순한 여가나 놀이, 또는 창조적인 예술활동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문화가 담고있는 사회적 유기성, 계급성 그리고 권리와 행복권의 추구 등 청소년들에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고민과도 무관하지 않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주체성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과 같은 맥락이다.

청소년들이 문화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일방적인



것을 요구하는 기성집단, 또는 전통적 사고방식만을 고집하는 가족 등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상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한 정체성이 압도한 기성의 엄숙주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대중매체 문화가 압도하는 일상을 바꾸어 나간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기존 패러다임, 기존의 방식으로 풀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청소년 문화 그 문화적 관점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 개인 또는 집단과의 의사소통, 노동과 직업,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력, 상상력, 통찰력 등이 문화적 접근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새시대의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역할과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가 소통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소통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열쇠는 문화의 소통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삶을 인정하고, 그들의 요구에 귀를 연다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청소년들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건강한 나침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PPFK